

2020년 골든글러브 영예의 주인공은...

최종 87명 후보 명단 확정
최고의 선수 10명만 수상
kt wiz 총 14명 후보 선정
오는 11일 시상식서 공개

2020시즌 개인상을 휩쓴 프로야구 kt wiz가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에서 최다 후보를 배출했다.

KBO 사무국은 2일 2020 신한은행솔(SOL) KBO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총 87명이다. 이 중 KBO리그에서 포지션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투수 부문 후보는 마이크 라이트, 드루 루친스키, 원종현(이상 NC 다이노스), 라울 알칸타라, 유희관, 최원준(이상 두산 베이스),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 배제성, 소현준, 주권, 윌리엄 쿠에바스(이상 kt), 타일러 윌슨,



지난 2019년 12월 9일 열린 2019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선정된 수상자와 대리수상자의 단체사진.

연합뉴스

임찬규, 케이시 켈리(이상 LG 트윈스) 등 총 27명의 후보가 선정됐다. 포수는 NC 양의지, 두산 박세혁, kt 장성우, LG 유강남, 한화 최재훈 등 7명이 선정됐다. 지명타자는 NC 나성범, 두산 호세 페르난데스, kt 유한준, 키움 서건창, KIA 최형우, 롯데 이대호, 삼성 김동엽이 이름을 올렸고, 1루수 후보로는 NC 강진성, 두산 오재일, kt 강백호, LG 라모스 등 6명이 등록됐다.

2루수 부문은 NC 박민우, 두산 최주환, kt 박경수, LG 정주현, 롯데 안치홍, 삼성 김상수가 후보에 올랐다. 3루수 부문은 NC 박석민, 두산 허경민, kt 황재균, 롯데 한동희, SK 최정이 경쟁하고, 유격수 후보는 NC 노진혁, 두산 김재호, kt 심우준, LG 오지환, 키움 김하성 등 7명이다. 좌익수와 중견수, 우익수의 구분 없이 3명이 선정되는 외야수 부문 후보는 권희동, 에런 알테어, 이명기(이상

NC), 멜 로하스주니어, 배정대, 조용호(이상 kt), 김현수, 홍창기(이상 LG) 등 총 22명이다. 10개 구단 중 NC, 두산, kt 3개 구단은 전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했으며 특히 kt는 총 14명이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라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2020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오는 11일 오후 3시 4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

“다른 선수가 당선됐어도 받았다”

선수협회장 이대호 기자회견
‘판공비’ 논란 정면으로 반박



기자회견하는 이대호 선수협회장. 연합뉴스

판공비를 인상하고 이를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인 이대호(38·롯데 자이언츠)가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대호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공비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대호는 먼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겠지만 판공비를 6000만원으로 ‘셀프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대호는 2019년 3월 18일 개최된 임시 이사회에서 참석한 선수 30명 중 과반의 찬성으로 기존 연 판공비 24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그는 “회장직을 맡는 것을 모두 꺼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장이라는 자리에 앉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존중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모였던 선수들이 제안해 가결된 일”이라며 “만약 제가 아닌 다른 선수가 당선됐다면 그 선수가 회장으로 판공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호는 “판공비를 너무 많이 지급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타에 대해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깊게 생각했어야 했다”며 “그러하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화 레전드 송진우 독립리그 감독 도전

스코어본 초대 사령탑으로

한화 이글스를 떠난 송진우(54) 전 코치가 독립야구단 스코어본 하이에 나들의 초대 사령탑에 올랐다. 마정길(41) 키움 히어로즈 코치도 스코어본 구단 투수코치로 합류했다. 스코어본 구단은 지난달 29일 온라인 창단식을 열었다. 4일엔 2021 경기도 독립리그단 구단들과 함께 트라이아웃도 한다. 송진우 신임 감독은 한국프로야구

KBO리그에서 210승을 거둔 ‘전설적인 투수’다.

KBO리그에서 200승 이상을 거둔 투수는 송진우 감독뿐이다. 2017년 3월까지 한국 야구대표팀 코치로 뛰다 휴식을 취했던 송진우 감독은 2018시즌 다시 한화로 돌아왔지만, 2020시즌이 끝난 뒤 팀을 떠났다. 2021년부터 경기도 독립리그단에 합류하는 스코어본의 사령탑 제의를 받은 송 감독은 독립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미리 보는 여자농구 챔피언 결정전

KB 8연승 vs 우리은행 1위
내일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여자프로농구 ‘양강’으로 꼽히는 정주 KB와 아산 우리은행이 4일 충남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을 벌인다.

코로나19로 중도에 끝난 2019-2020시즌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우리은행은 6승 3패로 단독 2위를 달리며 선두 KB(7승 2패)를 1경기 차로 추격 중이다.

이날 경기에서 KB가 승리하면 8연승과 함께 2위 우리은행과 격차를 2경기로 벌리며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독주 체비를 갖추 수 있다. 반면 우리은행이 이기면 4연승을 거두며 KB와 공동 1위가 된다. 또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KB를 71-68로 물리친 데 이어 상대 전적 2전 전승으로 우위에 선다.

나란히 연승을 이어가며 선두 경쟁

중인 두 팀의 맞대결은 벌써 ‘미리 보는 챔피언결정전’으로도 손색이 없다. KB는 득점(25.8점)과 리바운드(15.1개), 볼록슛(3.1개) 1위를 달리는 박지수를 중심으로 강아정과 최희진 등의 외곽포가 강점이다. 6개 구단 중 득점 1위(77.7점), 3점슛 1위(7.8개), 어시스트 1위(21.8개) 등 공격 지표에서 강세를 보인다. 이에 맞서는 우리은행은 주전 가드 박혜진이 개막전 도중 부상으로 빠진 이후 복귀하지 못했지만 김소니아, 박지현 등 지난 시즌에 비해 일취월장한 선수들이 팀 상승세를 주도한다. 김은혜 KBS 해설위원은 “KB는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김민정, 염윤아 등이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개막전처럼 고비 때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줄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김소니아, 박지현 등 최근 팀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선수들이 해결 능력까지 발휘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거친 태클을 피하는 모하메드 살라 2일(한국시간)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아약스와 2020-2021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5차전 홈 경기에서 커티스 존스의 결승 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리버풀은 조 1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제주삼다수 3X3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

12일 제주 탐동광장서 진행

올해 도내 최대 규모의 길거리 농구대회가 개최된다. 제주도농구협회는 오는 12일 오전 9시 제주시 탐동광장에 마련된 특설 경기장에서 ‘2020 제주 삼다수 3X3 BASKETBALL CHALLENGE’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주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후원하고 제주도체육회와 도농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U-15부(중등부), U-18부(고등부),

OPEN부(일반)로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경기가 끝난다면 30분간 경기장 방역 및 대기실 환기가 이뤄진다.

대회 접수 마감은 오는 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농구협회(064-724-2727)로 문의하면 된다. 도농구협회 관계자는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라 그동안 농구대회에 목말랐던 동호인들에게 큰 기회를 모으고 있다”며 “육지에서 참가하는 팀들을 위해서 무료 숙박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